푸른광주21협,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 설문

"지역발전이 먼저, 환경보전도 함께"

광주시민들은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순수한 '환경보전'보다는 환경·경제 등 각 부문을 통합한 '지역발전형' 사업추진이 바람직하고, '친환경 공간계획'을 우선 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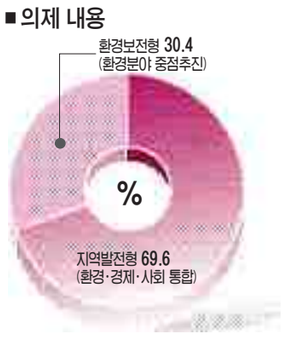
이는 '푸른광주21협의회'(공동운영위원장 김강렬·염명곤·윤광호)가 지속가능한 광주발전을 위한 제3차(2007~2011년) 의제 설정을 위해 지난 1~2월 광주시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여론조사는 광주시민(548명)과 공무원(165명)으로 이뤄진 A그룹, 대학교수·시민단체활동가·기업인·협의회위원(50명)과 공무원(31명)이 포함된 B그룹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간계획 친환경적으로"=A그룹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광주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건을 물은 결과, 31.3%가 '친환경 공간계획'을 꼽았다. 다음으로, 환경정책 추진체계와 의지(28.3%),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절약(25.7%), 녹색교통체계(14.8%)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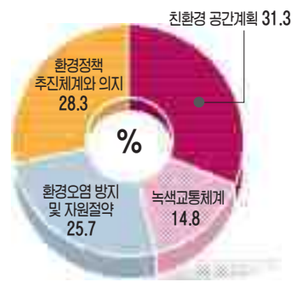
〈그래픽〉

시민들은 친환경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1순위로 생태산업단지조성(15.9%)과 나무심기(도시 숲 가꾸기·15.9%)를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순위는 환경오염지대(구도심) 재개발(14.1%), 3순위는 친환경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13.7%)을 들었다.

■ 의제 내용



■ 지속가능도시 위한 요건



"친환경 공간계획 우선" 31%
"독립 조례 제정 시급" 54.2%

제2차(2002~2006년)의제 8개 분야 29개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5.0만 점에 '생태·녹지'분야가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폐기물·소비생활(2.98), 교통·도시계획(2.89) 순이었다. 물·하천은 가장 낮은 2.58점을 받는데 그쳤다.

◇"조례 제정 시급"=환경 전문가 등이 포함된 B그룹에는 3차 의제의 방향 설정과 관련한 질문이 주어졌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4.3%가 '지속가능 발전의 초점'을 '생태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도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환경문제를 주요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은 25.9%였다.

바람직한 사업 내용으로는 환경·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지역발전형' 의제가 69.6%로 압도적이었다. 환경만 챙기는 '환경보전형'은 30.4%에 그쳤다.

또 54.2%가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수립 및 지방의제21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독립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차 의제의 중점과제로 환경분야에서는 생태(공원, 녹지 등· 24.7%), 경제분야는 도시개발(택지개발, 산단 조성·51.9%), 사회분야에서는 문화와 복지(각 28.4%)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년마다 과제 평가=푸른광주21협의회는 이에 따라 4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11년까지 추진하는 3차 의제를 환경·경제·사회를 통합하는 '지역발전형'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교육(ESD) 5개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해 추진한다.

협의회는 ▲'지속가능도시포럼' 정기개최를 통한 비전 마련▲민·관·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의제 실천 등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경제·사회분야의 추진 의제도 2년마다 평가·공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방의제 21의 제3기 출범식과 워크숍을 오는 19일 오후 3시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t)=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에서 처음 제시됐다. 현 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뜻하며, '의제21'의 기본정신이다.

장거리 비행 챔피언은 흑·꼬·리·도·요

뉴질랜드~북한 10,205㎞ 쉬지 않고 날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표적인 철새로 알려진 흑꼬리도요〈사진〉의 몸에 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뉴질랜드에서 북한까지 1만205㎞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 장거리 비행의 1인자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실험을 진행한 뉴질랜드 생태학 연구팀은 'E7'으로 명명된 이 암컷 흑꼬리도요가 지난달 17일 뉴질랜드의 코로만델 반도를 출발해 일주일 후 북한의 압록강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새는 2㎞ 고도를 유지하며 평균 시속 56㎞의 속도로 단 한 차례도 쉬지 않은 채 비행을 계속해 나갔다.

'E7'의 경로를 쫓아 한국을 방문한 필 배틀리 뉴질랜드 매시대학 교수는 1일 "이 새가 날개짓 외에 다른 행동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흑꼬리도요가 바다 건너 멀리 날아가는 이유에 대해 "짝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흑꼬리도요는 몇 주간 북한의 개펄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한 뒤 최종 목적지인 알래스카로 다시 이동, 그곳에서 알을 낳게 된다.

/연합뉴스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장흥 탐진천. 장흥읍 평화교에서 부산면 부산교까지 4.92㎞ 자연형 하천 복원 공사에는 2008년까지 80억 원이 투입돼 수질정화 생태습지원 2만㎡, 식생호안 1.35㎞, 평여울 설치 3개소, 자연석 호안(1.83㎞) 등이 조성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광주·전남 하천 자연친화형으로

광주·해룡천 등 47곳 2015년까지 1,600억 들여
보 철거·휴식공간 확보·습지 조성 등 하천 복원

광주·전남지역 하천이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자연친화형으로 탈바꿈된다.

환경부는 4일 광주 광주천·순천 해룡천 등 이 지역 47개 하천을 오는 2015년까지 1천642억여원을 투입해 자연 하천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이번 계획은 도심을 관통하는 지방하천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야생동·식물 서식공간 마련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확보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 ▲주민참여 기반 구축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2010년까지 10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주천의 콘크리트 보(堡)를 철거하고 물고기가 오갈 수 있는 어도와 산란지를 조성하며, 퇴적물 준설과 복개구간 복원사업도 지원한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 보호를 위해 ▲장흥 탐진천 ▲화순 화순천 ▲담양 담양천 ▲목포 입암천 ▲나주 지석천 등 25곳의 지방하천은 760억여원를 투자해 생태하천으로 꾸민다.

섬진강의 지천인 ▲보성 보성강 ▲조성천 ▲무안 무안천 등 6개 하천도 200억여원을 들여 복원하며, 주암호에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습지를 조성(80억원)한다.

철새도래지인 순천만 보호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66억원을 들여 해룡천의 수질을 개선키로 했고, 고흥만으로 유입되는 고흥천의 수질 보호을 위해 62억여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또 하천 주변 토지를 사들여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해양수산부의 낚시관리제 도입에 맞춰 물고기 산란철인 4~6월 하천에서의 낚시 제한을 확대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에서는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 '하천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자연 친화형 하천정비 계획대상

(단위 : 백만원)

지역	하천명	추진기간	향후지원 사업비	지역	하천명	추진기간	향후지원 사업비
광주	광주천	'04 - '10	10,500	영암	도포천	'08 - '09	785
장흥	탐진천	'04 - '08	3,610	함평	무안천	'12 - '15	2,072
장흥	부동천	'08 - '11	4,200	함평	학교천	'12 - '15	6,001
장흥	고읍천	'11 - '12	2,100	무안	무안천	'04 - '10	7,704
장흥	평화천	'14 - '15	2,100	보성	동윤천	'06 - '08	2,573
장흥	대덕천	'00 - '15	2,100	보성	보성강	'09 - '10	3,500
화순	화순천	'04 - '08 '09 - '14	11,045	보성	양월천	'08 - '09	2,445
담양	담양천	'13 - '15	5,487	보성	조성천	'08 - '09	2,100
강진	봉황천	'11 - '13	755	보성	동윤천	'09 - '10	2,100
목포	입암천	'10 - '11	3,645	목포	삼향천	'03 - '08	2,658
나주	지석천	'12 - '14	2,918	신안군	지도천	'08 - '11	2,100
고흥	도화천	'09 - '12	4,474	고흥	녹동천	'03 - '08	5,537
고흥	시정천	'08 - '11	3,523	광양	서천	'05 - '08	1,416
무안	검용천	'12 - '13	2,488	진도	진도천	'05 - '07	1,580
무안	덕돈천	'14 - '15	2,502	여수	연등천	'02 - '06	6,891
영광	길용천	'00 - '14	1,590	여수	중흥천	'10 - '11	2,100
영광	와탄천	'09 - '11	6,216	여수	남수천	'08 - '11	2,100
영광	구암천	'08 - '10	3,360	여수	상암천	'08 - '11	3,850
영암	망호천	'00 - '10	710	보성	주암호	'07 - '13	8,000
영암	영암천	'00 - '15	1,728	보성	벌교천	'09 - '11	3,500
영암	학산천	'00 - '15	1,124	고흥	고흥천	'07 - '11	6,172
영암	호동천	'08 - '09	783	해남	해남천	'07 - '12	4,264
영암	시종천	'08 - '09	692	순천	해룡천	'07 - '13	6,600
				순천	동천	'05 - '06	514